

삼성전자, 2000명 릴레이 헌혈로 이웃사랑

직원 1명 헌혈하면 1만원 후원

삼성전자가 2월 한 달 간 전국 사업장에서 ‘삼성전자 헌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년 중 혈액이 가장 부족한 동절기에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돋기 위해서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1996년부터 매년 2월 헌혈 캠페인을 실시해 작년에는 2월 한 달에만 1796명의 임직원이 헌혈을 했다.

올해도 많은 임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평소 헌혈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해 온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의지를 더했다.

삼성전자 IM부문의 박이훈씨는 작년 한해 동안 총 24회의 헌혈을 했다. 헌혈 24회는 일년간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 횟수다.

삼성전자 DS부문의 권도형씨는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헌혈을 해 온 직원으로, 지난해



지난 1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삼성디지털시티) 임직원들이 헌혈하는 모습.



중기중앙회, 복지시설에 온누리상품권 지원
‘중소기업사랑나눔 재단’이 설 명절을 맞아 전국 107개 복지시설에 1억 65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매년 명절과 연말에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있다. 올해로 4년째 선물이다. 김기훈 재단 사무국장, 신진문 중기중앙회 원로자문위원장, 서석홍 재단 이사장, 박경옥 토마스의 집 총무, 박현복 중기중앙회 원로자문위원회 사무총장(왼쪽부터)이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시설인 ‘토마스의 집’을 방문, 성금전달식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오리온-국방부 국군장병 복지·취업 지원 MOU

오리온그룹이 국방부와 국군장병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후원에 나선다.

오리온은 국방부와 ‘국군장병 복지 및 취업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경재 오리온 대표이사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리온은 ▲신병 교육대 장병 및 군 주요 행사 후원 ▲국군장병을 위한 체육·문화 행사와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교류 활동 지원

▲전역(예정) 장병 등의 취업 지원에 대해 국방부와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오리온은 향후 10년간 매년 군에 입대하는 훈련병들과 군 주요 행사 지원장병 및 참석자들에게 국군 응원문구가 새겨진 특별 패키지를 제공한다.

더불어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농구단 및 자회사인 쇼박스 등과 연계한 체육·문화 콘텐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백인웅 기자 parkiu7854@



12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군장병 복지 및 취업 지원 협약식에서 이경재 오리온 대표이사(왼쪽),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리온

신점[神占] 운세

2월 12일(목 12월 28일)



60년생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72년생 일마다 장애가 많습니다. 84년생 주위 사람의 곁과 속이 다르니 가슴만 아픕니다. 96년생 오랜 친구가 이성으로 다가옵니다.



61년생 세상을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73년생 일운이 막히니 걱정을 조심하세요. 85년생 검소한 생활을 하세요. 97년생 베푸세요.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50년생 첫만남의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62년생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습니다. 74년생 업무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86년생 아무도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날입니다.



51년생 얼마전부터 애하게 찾는 게 있습니다. 63년생 지성으로 빌면 이루어집니다. 75년생 걱정시켰던 문제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87년생 융통성 있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52년생 달빛이 하늘에 훈하니 하늘과 땅이 다같이 훈합니다. 64년생 건강관리를 잘 하세요. 76년생 금전적으로 조금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88년생 바라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53년생 너무 무게 잡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65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77년생 모험심이 생깁니다. 여행을 떠나세요. 89년생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들판!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SUDOKU

5	2			3	6			
8				7		6		
		1			5		7	
	5	8		9	3			4
9				5	4			8
1				2	8	9		
	1	2			9		6	8
				6		4		
	9	4			3			

1		9					2	
3		4				8		
4			2	7	1		3	
1					9		8	
7			6			2		
9	4					3		
7	1	2	3			5		5
2		1	2			4		
4			1			7		9

스도쿠 정답								
6	8	9	4	1	7	3	5	2
7	3	5	8	6	2	4	1	9
4	1	2	3	7	8	9	3	6
9	7	3	5	4	1	7	4	8
2	5	8	6	9	3	1	7	4
3	9	4	1	7	2	5	6	3
8	4	2	7	9	3	6	8	5
5	2	7	9	3	6	8	4	1
4	6	3	5	7	8	2	1	9

문제 제공= **보노스**



KPC 신임회장에 노규성 교수

한국생산성본부(KPC) 신임 회장에 노규성 선문대 교수가 선임됐다.

한국생산성본부는 12일 임기 3년의 신임 회장에 노규성 교수를 임명했으며 오는 14일 취임식을 한다고 밝혔다.

노 신임 회장은 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영정보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연구원, 한국신용평가 팀장, 한국미래경영연구소 본부장 등을 거쳐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노 회장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노 회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산성 혁신과 중소·벤처기업 중심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KPC는 설명했다.

/윤휘종 기자 yhhj@

김상회의四季



성공을 기약하는 무술년의 자기 암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을 바라면서 하는 생각이나 행동은 항상 과는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어느 책에선가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지적한 것을 보았다. 즉, 성공한 사람들은 지켜보자니 하루 종 대부분을 문제의 해결책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즉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 종 대부분을 문제 자체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문제 자체에 빠져 그 문제가 누구 탓인지를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언짢아하느라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다. 이런 감정은 부정적 사고와 분노를 유발해 탓할 사람을 찾게 된다.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부정적 감정의 소모에 힘을 탐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을 한 그 책의 저자는 ‘문제’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해결책’에 집중하느냐의 주제로 보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중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같은 상황에서도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석가세존이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 이미 이천 오백년 전에 말씀하신 바 있다. 이미 화살을 맞았을 때는 빨리 치료에 임해야지, 이 화살은 어디에서 날아왔으며 이 화살의 재질은 무엇이며 이를 때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다. 촌각을 타는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야지 저변의 상황에 신경을 쓴다면 이는 생생까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하신 것이다.

2018년 올 해 무술년(戊戌年)은 무토(戊土) 황금 개띠라 해서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무술년 개띠는 천간(무; 戊)과 지지(술; 戌)의 특성으로 볼 때 글자 속에 숨어있는 화(火)의 건조하고 불이 성한 특성을 갖고 뜨거운 해로 보아야 한다. 물상적으로 술(戌;) 개는 주인과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천성적으로 충성심이 강하고 감수성 또한 부드럽다. 그러나 성질이 급하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악성의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무술년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매사 급히 하지 않으며 인내심을 발휘하여 꾸준히 자기 일에 성실히 해나간다면 분명 집중의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마음에 화가 나고 텄탁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원망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불태워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후회가 덜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